

# 워크데이 “AI는 팀메이트”... 한국 기업 AX 지원 강화

초지능 AI 에이전트 ‘사나’ 공개  
기업 정책·보안 체계 등 내재화  
‘사나 엔터프라이즈’, 구글 등 연동

“기업 혁신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람이 함께 협업하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낼 때 이뤄진다. 워크데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래형 업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14일 웨스턴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 2026’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월 선임된 허정열 워크데이코리아 지사장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구글·세일즈포스 등 25년간 글로벌 IT 업계를 거친 그는 한국을 혁신과 속도, 산업의 우수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허정열 지사장은 “한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은 단순히 AI 도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 팀메이트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꼽은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



허정열 워크데이코리아 지사장이 4일 열린 ‘워크데이 엘리베이트 서울 2026’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는 ‘쉐도우 ERP’다. 쉐도우 ERP는 회사의 공식 승인이나 관리 없이 부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비즈니스 규칙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산 마감, 급여 지급처럼 민감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원칙과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공급하는 엔터프라이즈 AI는 단순히 거대언어모델(LLM) 추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허 지사장은 “20년전 ERP(기업자원

관리) 시장은 재무나 급여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볼트온 방식으로 시스템을 덧붙이는 구조였다”며 “워크데이는 처음부터 단일 보안 체계와 코어 구조 안에 기능을 내재화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구조가 차별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데이는 초지능 AI 에이전트 ‘사나 프롬 워크데이’를 공식 소개했다. 데이터와 로직이 분리되지 않도록 AI 에이전트 런타임에 내재화했다. 또 그동안 고객들이 워크데이에 구축한 회

사 내 정책과 규칙이 자산으로 작용해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다시 구축하거나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각 사용자 역할과 권한에 맞춰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볼수 있는 체계도 강점이다.

현장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 지표가 공개됐다. 전 세계 1만10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 중인 워크데이의 고객 유지율은 97%에 달한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65% 이상이 워크데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개별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워크데이 조슈 스벤 워크데이 글로벌 솔루션 마케팅 부사장은 “워크데이는 AI 가드레일과 규제 엔진을 적용해 AI가 권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며 “예를 들어 세일즈 매니저가 AI를 활용하더라도 허용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거버넌스와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사·재무 워크플로 자동화를 지원하는 ‘사나 셀프서비스 에이전트’를 도입한 기업은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약 20% 향상했고, HR 서비스 요청 건

수가 25% 감소했다.

새롭게 출시한 ‘사나 엔터프라이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노션 등과 연동해 기업 업무 역량을 확대했다. 각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최신 버전의 문서를 찾아 탐과 공유하고 일정 확인과 회의 예약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에코시스템도 강점이다. 고객은 자사 환경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양방향 데이터 공유도 가능하다. 현재 3000개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 기업용 AI 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개념으로는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제시했다.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람과 AI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협업하는 환경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에서는 메타, 세븐일레븐 등 기업들이 워크데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해 계약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 등을 바꾸는 등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국방부-SKT, 국방분야 ‘독자 AI’ 적용키로 CJ올리브, 오리온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에이닷 엑스 K1 경량화 모델 제공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첫 사례

SK텔레콤이 정부와 ‘K-AI’ 혁신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국방부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과모)를 추진하는 첫 사례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 김명국 SKT 인터스트리얼 AI 본부장,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실증 ▲공개데이터 수집·제공 및 활용 ▲국가 AI 프로젝트와 연계한 GPU 활용 지원 등이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특화 AI 모델을 신속히 개발·실증해 국방 AX가 한걸음도 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고성능 AI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역량과 서비스형 GPU(GPUaaS)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용량을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A.X(에이닷 엑스) K1’ 경량 모델 등이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 정예팀은 국내 최초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에 진출했다.

김명국 SKT 인터스트리얼 AI 본부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이 중요한 금융·제조·의료·공공 등 영역에서 AI 활용을 확산해 K-AI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우리 독자 AI 기술이 국방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정부의 GPU 인프라를 결합해 국방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

데이터 기반 지능형 체계 마련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오리온의 차세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냈다. 그간 축적해온 제조 AX(AI 전환) 역량을 K-푸드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리온의 차세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구축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리온은 기존 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계를 새로 구축해 글로벌 사업 확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통계적 공정 관리(SPC) 기법을 적용한 품질 이상 조기 감지 체계다. 설비와 공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차트와 패턴 분석을 통해 품질 이상 징후를 미리 잡아낸다 는 게 골자다. 기준값을 넘었는지 여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리온의 차세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만 단순히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의 흐름과 패턴까지 읽어내 사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맞춤형 리포트 기능을 더해 현장 업무 효율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확장성도 이번 시스템의 주요 특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향후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글로벌 사업장 확대까지 염두에 둔 확장형 아키텍처를 적용한다.

/최빛나 기자

## KT, 클라우드 ‘AI 상담 서비스’ 인증 갱신

2031년까지 안정적 서비스 지원

KT가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공공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KT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인공지능컨택트센터(AICC) 솔루션 ‘에이센(A’cen)’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2031년까지 공공시장에 안정적인 AI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SAP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제도다. 국가·공공기관에서 민

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인증하기 위해 시행된다.

KT는 2021년 4월 이 서비스의 SaaS 표준 등급 인증을 처음 취득한 뒤 올해 갱신 심사를 거쳐 CSAP 인증을 연장했다. 이번 갱신으로 5년간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KT는 국가·공공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AICC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현재 CSAP 인증을 바탕으로 국세청, 통계청, 광주광역시청 등 60여 개 공공·행정기관 FAQ 안내, 당직·민



KT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인공지능컨택트센터 솔루션 ‘에이센’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갱신했다.

원 등 업무에 KT 에이센의 AI 보이스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30여개 대형 금융사를 포함해 400개 이상 기업에 AICC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등본 발급해줘”... 카카오 AI 국민비서 진화

음성 인식 기능 도입

앞으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같은 공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 ‘AI 국민비서’에 음성 인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행정 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공공시설 예약까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카카오톡의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대화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조작이나 텍스트 입력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장벽 없이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 신청·발급과 1200여개의 공공시설 조회·예약을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도록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